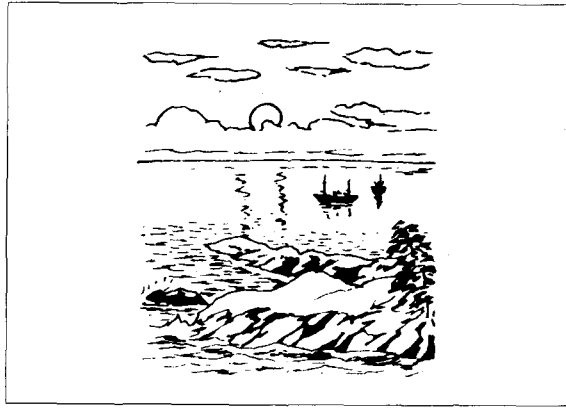


#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韓 相 復〈國立水產振興院海洋科長〉



한국과 일본사이에 있는 동해바다 한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독섬이 있다. 울릉도에서 90km 거리에 있기도 하며 일본의 오키섬에서 160km 거리에 있는 이 섬은 현재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영토분쟁의 와중에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독도(獨島)」라 부르며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다케시마(竹島)」라고 하면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섬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인데 독도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그 중요성을 간과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 이 섬은 오랫동안 자연적인 상태

**울릉도에서 90km 거리에 있기도 하며 일본의 오키섬에서 160km 거리에 있는 이 섬은 현재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영토분쟁의 와중에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라 부르며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면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서 계속적으로 취락을 할 수 없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 여기에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면 결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사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옛 기록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섬이 어떻게 인식되어져 왔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땅인데 무슨 근거가 필요냐고 편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올바른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독도가 무인도였기 때문에 이 섬의 존재에 관한 기록은

모두 울릉도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옛 기록중 가장 훌륭하게 독도의 소속을 적어 놓은 것은 1770년(英祖 46년) 홍봉한 등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문헌비고」에 있는 울릉도 사실인데 이것은 1808년 서영보 심상규 등이 찬진한 「만기요람(萬機要覽)」속에 「문헌비고 울릉도 사실(文獻備考鬱陵島事實)」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이곳에 〈울릉(鬱陵)·우산(于山)은 다 우산국 땅이고 우산은 즉 왜인들이 말하는 마쯔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안용복의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 「문헌비고」에 독도를 우산이라 명칭

여기에서 독도의 옛이름인 「우산」을 일본인들은 「마쯔시마」로 부른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게 되며, 1693년의 숙종실록(肅宗 19年 11月條)에 있는 〈왜인이 말하는 「다께시마(竹島)」는 바로 우리나라의 울릉도이다〉라는 기록과 함께 동해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섬이 우리의 영토이고 「울릉도」와 「우산도」로 부르는데 이들을 일본사람들이 「다께시마」와 「마쯔시마」라고 일컬어서 일본에서도 두 개의 섬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두 섬의 위치를 뚜렷이 알지 못하고

서쪽 것이 「다께시마」, 동쪽 것이 「마쯔시마」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1787년 5월 프랑스의 「라 페루즈(La Pérouse)」 일행이 울릉도를 「다쥬레(Dagelet)」섬이라는 이름으로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고 이어 1791년 8월에는 영국의 「콜넛(Colnett)」가 울릉도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곳에서 거대한 바위를 보았다는 것이 「알고노트(Argonaute)」섬으로 알려지면서 1810년대의 지도 또는 해도에 동해의 왼편 두 개의 섬이 표시되기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알고노트」섬에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울릉도인 「다쥬레」섬에 「마쯔시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독일태생의 「시볼트(Siebold)」는 1823년 8월부터 1829년 12월까지 6년간 일본에 체재중 수집한 지도를 근거로 「일본지도」를 1840년에 출판했는데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0분에 「다께시마(Takasima, I. Argonaute)」를 표시하고 북위 37도 25분, 동경 130도 56분 위치에 「마쯔시마(Matusima, I. Dagelet)」를 나타내서 1820년대 후반의 일본지도를 서양에 소개했다.

1700년대에 울릉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르던 일본에서는 18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마쯔시마」로 부르게 되었고 「콜넛」이후 알려진 「알고노트」섬이 「다께시마」가 되었다. 일본인들의 「다께시마(竹島)」는 이때부터 실존하지 않는 섬이 되어 버리고 있다. 왜냐하면 「알

고노트」섬은 그 위치에 존재하는 섬이 아니고 허구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독도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허구적인 「알고노트」섬

허구적인 섬인 「알고노트」섬 즉 일본인들의 「다께시마」는 1870년대까지도 의심스러우면서 지도 또는 해도에 표시되고 있는데 1849년에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는 바위가 알려지고 이것이 「리앙꾸르(Liancourt) 암」으로 불려지기 시작하자 동해의 외딴 곳에 마치 3개의 섬이 있는것 처럼 되어 버렸다. 이 「리앙꾸르 암」은 1855년 4월 영국의 군함 「호넷(Hornet)」호에 의하여 위치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 측정되었고 또 「호넷 섬」으로도 불려졌으며 러시아인들은 1854년에 「올리부짜 및 메나라이 암」이라고도 불렀다.

이 섬이 실존하는 것으로 한국에선 예전에 「우산도」라고 부르다가 1880년대 이후에 「독도」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1700년대에 부르던 「마쯔시마」를 이미 울릉도에다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서양식으로 「리앙꼬 열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1850년대 이후 1870년대까지 동경 130도, 131도, 132도에 차례로 「다께시마」, 「마쯔시마」, 「리앙꼬 열암」의 순서로

3개의 섬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다가 그후에 「다께시마」가 실존하지 않는 섬임이 확실해지면서 「다께시마」라는 이름도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부터 시작된 울릉도의 적극적인 개발이후 이때까지 문헌에 나오던 「우산도」대신 울릉도 주민에 의해 「독섬」으로 불리워진 것으로 믿어지는데 1900년 10월 25일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라 칭하고 군으로 승격시키며 그 행정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동북쪽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금만 섬으로 1859년 영국의 와드(Ward)가 「부솔 암(Boussole Rock)」이라는 별칭을 붙인 곳이다. 그리고 「석도」는 1985년 김근수 선생님이 한국학 제32집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섬」의 뜻을 한문으로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이름인 「독도(獨島)」는 1904년 9월 25일자의 일본 군함 新高號 행동일지(현재 일본방위청 전사부 소장)에 「리양꼬루도암」을 한국인들은 「獨島」라 쓰고 일본어부들은 간단히 「리양꼬島」라 호칭하며 이곳에 파도가 심할 때는 「마쯔시마(松島, 울릉도)」에 피난가고 바다표범 사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60~70척을 실을 수 있는 화선을 타고 와서 납욕을 짓고 약 10일간

머문다고 기록한 바 있으며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심홍택군수의 보고내용이 보도될 때에도 나타난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해역이 노·일전쟁으로 그 전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자 일본에서는 1904년 울릉도 동남부에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를 건설하고 신속한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죽변까지 군용 해저전신선을 부설하였으며 이듬해인 1905년에는 독도 북단에도 감시망루를 건설하고 울릉도와 해저전신선으로 연결하여 통신망을 넓혔다.

## 縣告示로 독도를 일 영토화 획책

이러한 상황속에서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지방관서중 하나인 시마네쵸(島根縣)에서는 현고시(縣告示) 제 40호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있는 섬을 「다께시마(竹島)」라 칭하고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했다. 이 시마네쵸의 고시가 일본쪽에서는 영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로 되어있는데 이미 1904년에 한국영토인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망루를 건설한 바 있는 일본이 은밀히 지방관서의 현고시로 무인도이면서 한국영토로 통념화되어 있는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1906년 3월 29일(음력3월5일) 당시 울도

(울릉도)군수 심홍택의 보고로 서울에도 알려지게 되고 또 대응책도 강구되었는데 그 증거가 1906년 5월 1일자의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산문에 보도되고 있으며 5월9일자의 황성신문에서는 심홍택군수의 보고서 전문이 자세히 보도되어 있다.

특히 제국신문의 보도는 독도를 울릉도전체로 취급하고 <일본인의 호구조사는 용혹무괴한 일이어니와 점령하였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니 정이 상하지하거든 일본 이사에게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내부(內部, 내무부)의 훈령도 알리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측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마네쵸고시를 한국측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한국의 영토인 곳에 타국의 어떤 주장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일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도는 아직도 영토권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시마네쵸 고시를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시마네쵸 고시(告示)가 나올 당시 일본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수로지에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는 섬을 「리양꾸르열암」이라 부르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그 위치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 되어 있다.

이 당시 해상에서의 경·위도 측정에는 그 기술상의 문제

로 경도에 약 3분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으나 위도 결정에는 1분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일반적이었고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일본에서도 당시에 위도를 1분 이내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05년의 시마네깡 고시에는 북위 37도 9분 30초에 있는 섬을「다게시마(竹島)」로 정하고 있음을 본다. 실제의 섬 위치는 경도에 3분의 오차가 있고 위도에 4·5분의 차이가 있다. 경도측정에 3분의 오차는 기술상의 문제로 인정되지만 위도의 차이는 당시 오차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으며 거리로는 약 10km가 된다.

시마네깡 고시에 명시된 지리적 위치는 1902년 뉴욕(New York)호가 측정한 잘못된 결과를 사용한 것으로 위도의 경우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인정되지만 이 고시에 명시된 위치에는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바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인위적으로 붙여진 이름인「다게시마(竹島)」도 실존하지 않고 허구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일본해군에서는 1908년 8월 독도를 실지로 측량하고 동도 남단의 위치를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군 수로부에서는 수로고시 제 2094호로 위치를 정정하여 발

표했으나 시마네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1905년 당시의 경·위도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 독도는 한국땅

독도는 과연 누구의 땅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섬이「독도」로 불리거나「다게시마」로 불리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1905년 이전 한국과 일본에서의 역사기록중에서 이 섬의 영유권을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문헌이 한국측의「문헌비고 울릉도 사실」이며 이곳에는 두 나라에서 부르는 명칭까지도 나와 있다. 한국의 동쪽 바다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섬이 한국의 영토로 한국에서는「울릉도」와「우산도」로 부르고 일본에서는 이들을「다게시마」와「마쓰시마」로 불렀다.

외국인들의 해상활동에 의해 1800년대 이후 동해상에「알고노트」와「다쥬레」섬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이들에「다게시마」와「마쓰시마」로 표시하였다. 이어 1849년 이후에는 울릉도 동남쪽에「리앙꾸르 암」이 있음이 알려지자 한동안 동해의 외딴 곳에 3개의 섬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일본에서는 서양인들에 의해 알려진 제3의 섬을 서양식 이름으로 통칭하였다. 그러다가 1870년대 후에는「알고노트」섬이 실존하지 않음이 판명되면서 여

기에 붙여졌던 일본식 명칭「다게시마」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 1905년 일본의 시마네깡에서 영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는 위치에 인위적으로「다게시마」라는 섬을 설정하고 1908년 독도의 위치가 정확히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부르는「다게시마」는「콜네트」이후 알려지게 된 허구의「알고노트」섬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실존하지 않는 섬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의 동남쪽 90km에 있는 섬의 고유명사는 한국측이 부르는「독도」여야 하고 이는 곧 한국땅이 된다. 독도가 오랫동안 무인도였기 때문에 이 섬이 어느 유인도의 부속도서에 좀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거리관계로도 일본의 오기섬보다는 한국 울릉도의 부속도서 성격을 띄우고 있다.

이 사실은 1905년이후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조차 울릉도를 활동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독도해역에서 최초의 정규적인 해양조사도 1919년 7월부터 1921년 10월까지 모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양조사의 주관자도 일본의 시마네깡이 아니라 한·일 합방 이후의 조선총독부수산과였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㉔